



唐館書房之圖

당인주거지



The Tojin-Yashiki



唐人居住区



당인주거지



당인주거지는 밀무역 방지 등을 위해서 나가사키시의 슈젠지고(十善寺郷: 현재의 칸나이마치(館内町))에 만들어진 중국인 거주지였습니다. 1688년에 착공하여 다음 해에 완성된 당인주거지는 당시 8,015평이었습니다. 외곽은 높은 토담과 해자(壕字), 대울타리를 사용해 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. 또한, 내부에는 연립주택 형식의 2층짜리 기와집이 약 20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1784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중국인들이 직접 세운 건물들이 다수 신축되었지만, 이마저도 당인주거지가 폐지된 후 1870년에 생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. 이후, 토지는 분양되고, 현재는 나가사키시 지정사적지로 지정된 토신당(土神堂)과 천후당(天后堂), 관음당(觀音堂)이 당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.

당인주거지 실내도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